

북스

朝鮮시대 부정부패 막은 대간, 감찰, 암행어사

조선은 어떻게 ...

이성무 지음



500년 조선 왕조를 지탱한 근간은 여러 권력체 사이에서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 균형의 정치 역학으로 작용한 대간과 감찰, 암행어사 같은 감시원 제도였다.

위와 위신이 어떤 관리보다 높아 비록 당사관직이라도 대간의 인사를 받으면 정중히 답례해야 했다.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이었지만,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했다. 감찰의 감시기능은 정부 부처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유동적으로 움직였다. 업무 분담과 업무 추천제, 현대적인 업무 로테이션 등 자체 정화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사 박문수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 제도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의 산물이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이 제도는 지방 수령, 토호들의 정횡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아래로는 민생 안정을, 위로는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다.

암행어사는 대체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관료를 선발했기에 조선시대 저명인사 중에는 암행어사를 역임한 인물이 많다. 조광조, 이항, 채제공, 정약용 등이 암행어사 출신이다.

조선 후기 아담집과 설화집에 수록된 박문수와 관련된 설화가 무려 30여 편에 달할 정도로, 암행어사 박문수는 혁혁한 업적을 세워 민중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각인됐다.

책은 또 우리나라 감사기관의 변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핀다. 사정부 등 신라의 감사기관부터 현재의 감사원까지 역사와 감사기관의 필요성, 감사제도와 국가발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저자는 이처럼 조선 왕조를 지탱한 3중 안전장치인 대간과 감찰, 암행어사를 통해 이 시대의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조선의 권력 견제장치와 그 변모는 물론 이면의 역사적 배경까지 살피고 살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굴과 황당한 인사, 뿌리 깊은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말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단기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거시적으로는 조선시대처럼 공교육을 통해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2000년 발간한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청아출판사·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어린이 책꽂이

▲내가 기르던 떡봉이= '네버랜드 우리 걸작 그림책' 시리즈 제24권. 13년간이나 거북이를 길렀던 저자의 경험을 재미나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거북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지닌 아이들의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기도 하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한글 피어다=한글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차게 담았다. 음성·언어학 교수, 동화작가, 글꼴 연구가 등 한글 관련 전문가 8명이 모여 썼다. 글쓴이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한글의 장점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의 이용가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와나무·1만3천원)



▲춤추는 이별=이미옥씨의 동시집. 날카로운 관찰력을 바탕으로 일상을 세심하게 잡아낸 동시 51편을 실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묻어나는 시어를 통해 사계절의 풍요로움을 담았다. 파란색과 하얀색이 시원하게 어우러진 바다의 모습을 감상하거나 감색과 갈색의 풍경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문학고지식사·8천원)



▲톡톡 개성파 주디 무디 2=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인 주디 무디는 철자 말하기 대회서 우승해 신문에 난 것은 반 친구 제사가 관치가 부럽기만 하다. '나는 왜 자랑거리가 없을까?' 고민하던 주디는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이 먹다 남은 체리 씨를 250년 묵은 조지 워싱턴의 것으로 둔갑시킨다. (예림·8천원)



▲꽃구멍만 비뚤다=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이정록 시인의 동시집이다. 발달하고 당당한 아이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았다. 시인이 등단 20년 만에 내는 첫 동시집으로 스무해 넘는 글쓰기 경력과, 스무 해 넘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온 교사로서의 이력을 한데 버무린 동시 53편을 선보인다. (창비·8천500원)



▲열무의 빨간 비옷=모두 자기처럼 빨간 비옷을 입고 싶어할 것이라는 귀여운 소녀, 열무의 이야기이다. 비 오는 날, 빨간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 열무. 타닥타닥 퐁퐁, 비가 많이 와도 마냥 신이 난다. 색의 환함과 덧칠만으로 완성한 그림은 이 책의 단순한 이야기 구조와 맞물려 순수함을 더한다. (느림보·8천원)



▲치과에 갔어요=아이나 어른이나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인 치과병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치과 치료 과정을 말해 주며 아이들이 치과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림책이다. 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구멍으로 물이 안 넘어가게 입속에 쓰는 우산 등 치과에서 쓰는 치료 도구를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한솔수북·9천500원)

▲사랑해 모두모두 사랑해=엄마 아빠가 얼마나,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매우 시적이고 재치 있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 전작 캐릭터의 쌍둥이라 할 만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등장하며, 뉴베리 상 수상 작가인 매리언 데인 바우어가 섬세한 시적 문장으로 사랑의 표현을 따뜻하게 전달한다. (보물창고·8천500원)



조선이 5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혹자는 유교적 통치이념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과거제도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유교와 과거제도가 조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은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에서 그 비결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꼽았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명제가 있지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권력의 독점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 '감사기관'에 주목했다. 특히 여러 권력체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 역학을 작동하는데 핵심적 기능을 한 대간, 감찰, 암행어사 제도를 흥미롭게 살폈다.

대간은 왕의 즉위와 고위관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탄핵하고 상소를 올리며 조선왕조의 파수꾼 노릇을 했다.

태종이나 세종은 대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했지만, 유교적 정치이념이 고요된 성종에 이르러서 대간의 활동은 활발해졌다. 성종 때 대간에 의해 탄핵당한 고위 인사는 2천700명에 달한다. 한평생의 성종 치세 기간에 무려 107차례에 걸쳐 대간으로부터 탄핵당했을 정도다.

대간은 최고의 실력과 강직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뽑았으며 권

입양아 등 소수인의 삶과 문화

한국어 수업

황은덕 지음



200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한국어 수업'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에 시작한 무인 출신 작가 황은덕씨가 등단 10년만에 첫 소설집 '한국어 수업'을 펴냈다.

'내나' 등 이집 편을 묶어 낸 소설집은 여성의 시각으로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의 삶을 이야기 한다. 유학생과 입양아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주로 수록돼 있다.

특히 '어두워질 때까지', '디너 타임', '사라는 어디에 있나' 등의 '사라'를 주인공으로 한 연작은 이민자, 입양아 등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수자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다.

이들 작품을 해외입양 등을 소재로 한 것으로 미국생활 등 국경을 넘는 시야를 확보한 작가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표제작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잊고 한국어 수업을 생활의 방편 정도로 생각하는 유학생 '나'와 한국과 한국어를 어머니 나라의 언어로 배우려 하는 입양인 출신 '크리스틴'의 상반된 지점이 결말되는 자매연호 만나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가 한기영씨는 "백인사회에 이질감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한국인 입양아의 처지를 다층적으로 살피고 그 아이들을 버린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였음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고 평했다. (창비·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상천외한 골프장 순례기

80라운드의 세계일주

데이비드 우드 지음



과연 골프를 칠 것 같지 않은 나라에도 골프장이 있을까? 이 대수롭지 않은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인터넷을 검색했고 그 결과, 전 세계 곳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골프장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골프 가방 하나를 달랑 맨 채 그 곳을 찾아 떠난다.

전직 코미디언이자 골프칼럼리스트인 데이비드 우드가 쓴 '80라운드의 세계일주'는 전세계의 '기막힌' 골프장을 찾아 쓴 조금 유별난 세계일주이자 기상천외한 골프장 순례기이다.

잔디가 없는 땅에서 즐기는 골프, 우뚝한 물집을 자랑하는 캄보디아 워터헤드즈 속에 숨어 있는 악어를 피해 다니며 치는 골프, 흑돼지 임팔라, 원숭이, 물소와 함께한 골프, 백옥 같은 꽃잎으로 뒤덮인 계곡에서의 아름다운 골프까지...

여행을 마치고 검은 스타프가 빠르게 적힌 여권을 쥐고 돌아오는 저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 모두, 고향에 돌아와 만난 친구들과 다르지 않더라!" 또 "이제부터 규칙적으로 골프를 즐겨 give me the fun!의 준말로 흘려서 가까이 있는 공을 패팅하지 말고 영어도 좋다는 뜻)도 없는 골프의 세계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배정만 웃으면..."

(작가정신·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엄마의 빈자리를 누가알까

안녕, 엘레나

김민숙 지음



스무살의 나이로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80년대에 이십대를 보낸 이들의 고민과 방황, 90년대를 대표하는 후일담 문학, 여성 문제와 가족문제, 그리고 삶과 존재에 대한 성찰까지 다양한 작품세계와 주제 의식으로 문단에 확고한 위치를 다져온 김민숙(46)씨가 신작 소설집 '안녕, 엘레나'를 출간했다.

2006년 '그여자의 자서전'에 이어 다섯번째 소설집으로 황순원문학상 최종심에 올랐던 '조동욱, 파비안느'(2006년), '숨-약물'(2008년) 등 2005년부터 쓴 7편의 단편을 묶은 것이다.

표제작 '안녕, 엘레나'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의 행실을 의심하며 끊임없는 폭력을 가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주인공 '소망'은 의욕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숨-약물'의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와 만나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병역을 기피하며 살았는데 결국 군에 끌려가고 만다. 아버지를 따라 뉴시터에 갔다가 축대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어머니는 얼마 후 죽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밖에도 저마다의 내밀한 상처들을 슬퍼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수록작들은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긴 여운을 주는 단편의 미학을 심본 느낄 수 있게 한다. (창비·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드림결혼정보... 010-6790-5408

분실... 약속어음 No. 22725881

신행안내 12면개재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